

문학 감상에서의 주체와 타자

- <혼귀>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감상과 교육적 가치-

이인경(인제대)

I. 문제의 발견
II.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 문학치료 기법을 도입한 ‘설화 읽기’ 수업
III. <혼귀>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해석과 교육적 가치
1. 문제의 ‘외재화 (표출대화)’ 기법
2. <혼귀> 설화에 대한 치료사의 문학치료학적 해석
IV. <혼귀>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읽기와 교육적 효과
V. 마무리

I. 문제의 발견

2007년 4월, 미국은 진정으로 더할 수 없이 ‘잔인한 4월’을 경험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던 것이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이들은 끔찍한 충격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착잡함을 느껴야 했다. 이 만행을 저지른 조승희에게 사람들이 쉽게 돌을 던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채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신음하던 상처받은 영혼의 소유자였다. 문학연구를 본업으로 삼고 교육현장에 종사하는 필자에게, 조승희가 명문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문학도’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문학치료학의 입장에서 볼 때, 문학작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서치료에 기여한다. 즉 “진단”과 “치료”이다.¹⁾ 조승희가 과제로 제출한 창작 희곡작품에는 병든 영혼의 상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담당교수는 조승희의 창작 희곡(이는 결국 조승희의 자기서사에 해당한다)에서 그의 심각한 병적 심리 상태를 인지하였다고 한다. 즉, 문학치료학적 진단이 적절히 이루어졌던 셈이다.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는 조승희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충분히 주목하거나 신뢰하지 않았다. 문학작품은 현실과 ‘무관한’ 허구가 아니란 사실이 쉽게 간과되곤 한다. 다시 말해서, 조승희가 받았던 영문학 수업은 영혼의 상처를 진단하는 데까지는 제대로 기능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전망을 열어주는 데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조승희에게 명문대학의 영문학수업은 내면의 분노를 표출하는 불협화음의 소음기(騒音器)로만 소용되었을 뿐,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줌으로써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랑의 약기가 되어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필자에게, ‘문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고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학수업 시간은 교사가 正典에 대한 권위

1) 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 문학의 기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극적인 기능으로서 심리적인 장애를 증상으로 드러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기능으로서 심리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일이다. 정운채, 『한국고전문학과 문학치료』,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도서출판 문학과 치료, 2006, 269면.

적 해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이 텍스트에 대한 단 하나의 정해진 해답을 찾기 위해 눈치를 보는 시간이 되기 십상이다. 학교 교육에서 문학 감상의 주체는 대학입학 시험을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권력이란 대학에서 正典에 대한 正論的 해석을 지향하는 學者群이 될 것이다.²⁾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즉 문학 수용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은, 시험 문제의 정답을 골라내는 데 방해가 될 뿐 아무 의미도 지니지 못하므로 고득점을 위해서 무조건 배제되어야 한다. 결국 학생은 문학 감상에서 철저히 타자화 되고 만다. 문학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역시 타자일 뿐이다. 교사는 주로 대학 입학고사를 출제할 교육행정 주체의 목소리를 파악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생들은 교사의 입을 거쳐서 그들을 향해 명령하는 이런 막강한 문학 감상 주체의 목소리에 길들여진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철저히 내면화하기 위해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한다. 교육현장에서 문학작품은 이처럼 교사의 입을 거치기 전까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학수업은 학생들이 문학작품 속의 복잡한 미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 권력이란 억압적 주체의 일방적 길안내를 무턱대고 따라가야 하는 지루하고 고된 노동이 되고 만다.

요컨대 우리의 문학교육이 이렇게 학생들을 문학 감상의 주체가 아닌 타자로 만들어왔기에, 문학이란 더 이상 즐거운 유희나 정서적 체험이 아닌, 지루하기 짝이 없는 억압적인 경험으로 학생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 스스로 문학작품을 감상한 후 자신의 내면에 일어난 심리적 변화를 점검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교육 경험의 당연한 결과로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문학작품과의 결별을 선언한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외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독서치료사인 조셉 골드는, 대학이 문학을 교과에 편입시키기 위해 문학을 매우 배타적이고 전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더불어 오랜 시간을 견딘 고전이나 읽기 어려운 텍스트만을 선정하여 읽기의 ‘전문기술’을 창조함으로써 문학 감상을 독점하고 그것을 복잡한 과정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대학이 자칫 유실될 수 있었던 古典을 가르친 것은 이로운 일이나, 이는 결국 ‘좋은 문학’을 읽는 전문적 독자와 대중문학을 읽는 비전문적 독자로 독자층을 갈라버렸다고 비판한다. 그는 ‘좋은 문학’이나 ‘위대한 문학’을 판단하는 것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평결을 과신하고 그런 판단은 스스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본다. 특히 각 학교 교사들이 자신이 대학에서 배운 그대로 수업시간에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고 있는 권위자로서 군림할 뿐 학생들의 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셉 골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자-반응’ 읽기이론을 지지하고 있다.³⁾

한편 이런 문제의식을 정운채의 연구에서 찾아보게 된다. 국문학 분야에서 문학치료학 분야를 개척한 정운채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국문학치료학회> 회원들과 함께 문학치료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문학치료학회>는 우선 문학치료학적 관점을 국문학연구에 도입함으로써 문학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정운채는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문학교육에 있어서 작품서사만이 아니라 문학을 배우는 학생의 정서(자기서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⁴⁾

필자 역시 조셉 골드와 정운채의 이런 주장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특히 조셉 골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문학교육이 正典 중심의 텍스트 연구와 학자의 권위적 해석에서 매달려온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

2) 대학에서의 문학연구와 문학교육이 지니는 긍정적 가치는 분명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 수업이 주로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은 문학작품의 능동적 감상과 글쓰기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3) 조셉 골드, 이종인 역, 『비블리오테라피』, 북키앙 주식회사, 2003, 306-310면.

4) 우리는 흔히 배우는 이가 어떤 작품을 잘 이해하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한다고 여길 뿐 그 작품을 좋아하고 있거나 싫어하고 있다는 점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고 모르고 못지않게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문학교육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일 수가 있다. 정운채, 「고전문학교육과 문학치료」,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도서출판 문학과 치료, 2006, 304면.

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 문화연구이론이 부상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문학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작가와 작품이 아닌 작품의 독자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연구이론에서는, 작품의 의미란 독자가 그 작품을 자신의 삶의 문맥에 들여오면서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이며, 가치 있는 작품이란 다양한 독자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본다.⁵⁾ 따라서 그동안 正典의 범주에 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학교육에서 등한시해왔던 설화작품의 위상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II.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 문학치료 기법을 도입한 '설화 읽기' 수업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설화작품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고민한 결과, 설화작품을 문학치료 기법을 활용하여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문학치료학은 서구의 상담학(심리치료)에서 발달해온 학문분야인데, “문제의 외재화(표출대화), 독특한 결과(예외적인 긍정적 이야기)의 발견, 경험의 재구성(대안적 이야기 구성), 재저작 대화” 등의 이야기 치료기법이 활용된다. 그러나 <한국문학치료학회>의 연구에서는 이런 기법을 활용한 사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상담을 통한 임상 연구보다는 작품 분석에 치중한 문헌 중심의 연구를 주로 진행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서구의 문학치료방법론을 굳이 차용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소산일 수도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해 변학수, 양유성, 고미영, 박종수의 저술을 통해 서구에서 축적된 문학치료 방법론의 이론적 기초를 닦는 한편,⁶⁾ 정운채와 <한국문학치료학회>의 연구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⁷⁾ 문학치료학을 국문학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이론적 기초를 성실히 닦아온 정운채의 노력은, 이제 그 열매를 보고 있다. 국문학계에서 문학치료학 연구가 일정한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문학치료학회>의 연구 활동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왜곡된 심리(심리적 상처)가 서사의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치유되는가를 살피는 데에 여전히 집중되고 있어서 심리학을 원용한 문학 내적연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본격적인 문학치료학이 되려면, 작품 속 등장인물의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는 서사적 과정이 아니라 문학작품 밖에 존재하는 자연인(독자)의 심리적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문학치료학은 문학작품을 수용하는 ‘독자’의 심리적 치유과정에 더욱 주목함으로써, 문학작품을 치료도구로 활용한 임상사례 연구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정운채는 “<구운몽> 독후감을 통한 자기서사의 탐색과 문학치료의 방향 설정”이란 논문에서 학교교육에서 독후감 쓰기를 통한 문학치료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었다.⁸⁾ 내담자의 독후감을 분석하여 자기서사를

5) 전통적인 문학비평은 문학의 고유성과 특권의 근거를 작가와 작품에 두고 설명해왔으나, 문화연구는 작품의 의미와 가치가 작가나 작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문화연구에서 작품의 의미로 간주되는 것은 독자가 그 작품을 자신의 삶의 문맥에 들여오면서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이며, 가치 있는 작품이란 다양한 독자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처럼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소비행위’에서 벌어지는 ‘의미화 실천’을 중시하는 문화연구의 관점을 도입할 때, 현대 대중사회에서 구비문학의 중요성과 가치는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대중문화와 구비문학은 소수 귀족층의 문화가 아닌 일반 대중의 문화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이인경, 「무대에 오른 구비문학, 그 성과와 전망」,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286-287면.

6)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5; 변학수,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2006; 양유성, 『이야기치료』, 학지사, 2004; 고미영, 『이야기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청목, 2004; 박종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이야기심리치료』, 학지사, 2005. 이외에도 도움을 받은 논자가 상당수 있는바 이는 참고문헌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7) 그간 발표된 정운채의 연구 성과가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도서출판 문학과 치료, 2006)로 정리되어 출간되었다. 이 책에 대한 정충권의 서평도 좋은 참고가 된다. 정충권, 「문학치료학의 출발점 다시기」, 『고전문학과 교육』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8) 정운채, 앞의 책, 329-353면에 수록되어 있다.

진단하고 이에 맞는 문학치료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런 처방에 따라 실제로 문학치료를 실시한 임상결과가 제시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강옥은 문학치료의 텍스트로 <구운몽>을 활용하여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⁹⁾ 텍스트에 대한 연구자의 치밀한 분석과 문학치료를 위한 방법론 구상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도 <구운몽>을 문학치료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을 뿐 그 실효성을 임상사례로 증명하지는 않았다. 사실 <구운몽>이란 텍스트는 문학치료를 위한 도구로 일반인에게 손쉽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텍스트의 분량이 길고 등장인물이 많아서 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라, 작품 속에 담긴 불교 철학적 의미 또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상당한 수준의 인지능력과 교양을 갖춘 내담자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작품으로 문학치료를 행한 임상연구는 아직 드문 편인데 근래에 문학치료의 임상사례를 다룬 학위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¹⁰⁾ 한편 문학치료의 효과는 문학작품이라는 치료도구보다는 상담자(치료사)의 역량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치료는 본질적으로 치료사가 하는 것이며 문학작품은 치료도구로서 보조적 역할만을 하게 된다. 따라서 문학치료의 성패는 문학작품에 대한 문학연구자의 전문적인 분석 능력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반응을 적절히 해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치료사의 능력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 문학치료’ 기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한국인을 치료한 임상사례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 역시 한국적 문학치료 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임상사례를 축적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문학치료 기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한 사례로 전영숙의 연구보고가 있다.¹¹⁾ 그는 중학교 2학년에게 문학치료 기법을 적용하여 문학 감상 교실을 운영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그 결과 이런 문학 감상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문학치료 기법을 활용한 문학 감상 수업이 학생들의 문학작품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인성교육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는 우리 문학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가는 데에 좋은 연구사례라고 본다.

2007학년 1학기에 필자의 강의를 수강한 국어교육 전공 교육대학원생 9명에게 두 편의 설화를 사용하여 문학치료 기법을 활용한 설화 감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우선 문학교육을 담당할 예비 교사들에게 문학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치료기법을 우선 이해시키기 위해서 <훈위>설화를,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복여행>설화를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교육대학원생들에게 적용한 이 설화 읽기 수업은, 내담자 개인의 심리적 상처를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는 본격적인 문학치료 과정이라기보다는 문학교육자로서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일차적 목표를 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문학작품 가운데 특별히 설화를 문학치료를 위한 텍스트로 택한 이유는, 우선 설화는 매우 압축된 형식을 지니기 때문이다. 설화는 분량이 짧은 점과 디테일이 섬세하지 않고 이야기의 빈 공간이 많다는 점에서 문학치료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심미적 경험을 독서심리학과 연결하여 이론을 정립한 볼프강 이저는 문학적 텍스트는 형식과 의미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빈자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독자는 그것을 “의미”로 채우고 심리투사의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한다.¹²⁾ 또한 설화는 오랜 세월 많은 이의 생각을

9) 이강옥, 「문학 치료 텍스트로서의 <구운몽>의 가치와 가능성-우울증과 관련하여」, 한국고소설학회 78차 정기학술대회 논문발표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10) 전영숙, <바리공주>를 활용한 문학치료의 실제 및 그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4와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부부 갈등 연구」, 게이앤씨, 2005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문학치료의 임상사례 논문은 대부분 교육대학원이나 도서관학과 석사학위 논문인데, 아직은 논의의 깊이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임상사례 연구가 양적으로 축적된다 보면 질적 도약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11) 전영숙, 「문학치료 기법의 학교 현장 적용」, 『문학치료연구』 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12) 변학수, 「치료로서의 문학-독서행위와 치료적 전략」, 『독일어문학』 17집, 독일어문학회, 2002.

거쳐 형성된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야기 전개가 단순하면서도 비약이 심한 이야기 줄거리는 독자의 무한한 상상력과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자신의 심리를 투사할 수 있는 무한대의 공간을 제공한다.¹³⁾ 희미하고 애매한 것은 독자의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화 속에 존재하는 풍부한 허구적 환상성은 독자의 심리적 저항을 줄이면서 인간의 억압된 내면심리를 밖으로 끌어내는 데에 아주 효과적이다.¹⁴⁾

이런 점에서 설화는 해석학적 가능성을 최대치로 열어주는 훌륭한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의 지평과 대상의 지평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상호수정이 가해져 변증법적인 의미를 생산해낸다는 해석학적 입장은 문학치료(상담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특히 설화작품에 적용할 때에 더욱 생산적이다.

지면 관계상 불가피하게, 여기에서는 교육대학원에서 예비교사들과 <혼쥐>설화를 문학치료학적으로 해석하여 감상해본 사례만을 보고하기로 한다. 이 작품을 문학치료학의 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한 연구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이 심리치료의 기법인 ‘표출대화(문제의 외재화)’의 효과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란 사실을 밝힘으로써, <혼쥐>설화가 지니는 문학치료학적 효용과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는다.

III. <혼쥐>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해석과 교육적 가치

이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글인 간단한 자기서사를 적어보게 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자기서사’란 용어는 이야기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elf-narrative’의 번역어로서,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의식(자아정체감, 자아의식)을 표출한 이야기’를 말하며, 정운채가 정립한 ‘자기서사’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¹⁵⁾

그리고 타인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혼쥐> 설화 작품을 자유롭게 읽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감상문 형태로 적게 하였다. 단, 각자 감상문을 작성할 때에 초점이 흩어지지 않도록 간단한 설문지를 함께 나누어 주었다. 설문지의 질문 내용을 생각해본 후에 감상문을 적어달라고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각자 주체가 되어 작품을 감상하고 첫 번째 감상문을 적어내는 과정이다.

13) 구비문학은 단순하고 간결하다. 그래서 구비문학은 그 해석의 가능성을 모든 수용자에게 활짝 열어줄 수 있다. 우리는 성근 줄거리의 틈새를 각자의 체험과 욕망을 통해 메워가면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오직 자신만의 이야기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인경, 「무대에 오른 구비문학, 그 성과와 전망」,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284면.

14) 문학의 이러한 허구적 환상적 특성이 오히려 여타 예술분야보다 심리치료에는 더욱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문학은 이러한 추상적 허구성과 함께 또한 구체적인 현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상성, 「심리치료를 위한 문학적 접근방법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7, 313면.

15) 고미영은 “모든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이야기(self-narrative)라는 견해도 있을 만큼 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불가분 ‘자아’라고 하는 심리학적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중략>...자기이야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야기이다.”라고 하고 ‘self-narrative’를 ‘자기 이야기’라고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고미영, 앞의 책, 54-67면 참조.

한편, 정운채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서사’를 가리켜 ‘자기서사’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야기치료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지배적 이야기’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정운채는 작품서사를 통해 내담자의 ‘자기서사’를 발견해내는 것을 문학치료의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자기서사’의 개념 속에는 ‘자기 이야기’와 ‘지배적 이야기’라는 용어의 개념이 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운채, 앞의 책, 330면과 400면을 참고하기 바란다.

<설문지>

1.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 이유는?
2.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나요? 그 이유는?
3. 등장인물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4.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5. 이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은? 그 이유는?
6.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혼취> 설화

옛날 옛날에 어떤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바느질을 하는 동안 남편이 옆에서 베개를 베고서 꼴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한참 바느질에 열중하던 아내가 문득 남편을 보니 남편의 콧구멍에 조그마한 흰 쥐 한 마리가 들랑날랑하는 것이 보였다. 놀라서 계속 보고 있으려니 쥐가 코에서 쪽 나와 방바닥으로 내려서서는 밖으로 나가려는지 문지방을 타 넘으려 했다. 하지만 문지방이 높아서 오르다가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했다. 그 모양을 보던 아내는 문지방에 살짝 자를 걸쳐 놓았다. 그랬더니 쥐가 자를 타고 문지방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아내는 살짝 문을 열고서 흰 쥐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쥐는 어디를 가는지 길을 가다가 다시 다리턱에 부딪혀 올라가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다시 여자가 자를 대 주자 자를 타고 올라가서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번 여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참을 가더니 웬 낮은 언덕을 넘어 산기슭으로 향했다. 보아하니 산기슭 덩불 속에 조그만 굴이 있는데 쥐는 그리고 쪽 들어가서 얼마간을 있다가 다시 나와 집으로 향했다. 오는 길에도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돌아온 흰 쥐는 방 안으로 들어가 도로 남편의 콧구멍 속으로 쪽 기어 들어갔다. 아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으려니 남편이 벌떡 깨어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거참, 낮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다 꾸었네."

"무슨 꿈인데요?"

"글쎄 꿈에 어떤 높은 담장을 넘어가려 하는데, 너무 높아서 넘질 못하고 있었겠지. 그랬더니 어떤 예쁜 여자가 와서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소?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길을 가는데 높은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여자가 다리를 놔 주더군요. 그래서 어느 커다란 굴 앞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속에 글쎄 금이 가득 담긴 동그란 단지가 하나 묻혀 있지 않았소?" 그러자 아내가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남편의 옷소매를 잡아끌었다.

"한번 가 봅시다."

"아이, 꿈속에 갔던 곳을 어떻게 찾아간담."

"제가 앞장설 테니 함께 가 봐요."

아내는 부엌에 들어가서 밥 한 그릇과 반찬을 싸 들고 나와 앞장을 서서 집을 나섰다.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길을 가다 보니 꿈속에서 본 풍경 그대로였다. 남편이 신기하게 여기면서 계속 아내를 따라 언덕을 넘어가서 산기슭으로 접어들니 덩불 속에 조그만 굴이 보였다.

"저 굴 아닌가요?"

"좀 작긴 하지만 아마도 맞는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굴 앞에 밥과 반찬을 차려 놓고는 자기도 큰절을 하고 남편도 큰절을 시켰다. 그렇게 정성껏 제사를 올리더니 그 굴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들어가서 땅을 이곳저곳 툭툭 두드리니 한 곳에서 쟁그렁 소리가 울려 나왔다. 아내가 남편을 시켜서 그곳을 파 보게 하니 과연 동그란 단지가 하나 나왔다. 뚜껑을 열어 보니 단지 속에는 정말로 금이 하나 가득 들어 있었다. 부부는 그 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큰 부자가 되어 잘살았다고 한다. 하얀 쥐는 사람들의 혼이라고 한다.

어떤 도박이 심한 사람의 코에서는 흰 쥐가 두 마리 나왔는데, 그 아내가 성질이 못된 쥐를 골라서 때려죽였더니 이후로 도둑질하는 버릇이 없어졌다고 한다.

신동훈, 『세계민담전집 - 한국 편』, 황금가지, 2003, 128-130면.

1차 감상문을 적어서 제출한 다음, 치료사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그 작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주고받게 하였다. 이 과정은 문학치료학에서 실시하는 집단 상담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과 동일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타인의 공감을 얻는 데에서 오는 심리적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발견할 경우에는 자신의 제한적 경험을 뛰어넘어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혼취> 설화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집단 상담 과정에서, 어떤 여학생은 아내가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면서 열심히 고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 학생은 남녀의 성별 역할 분담이나 남녀평등 문제에 예민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불성실했던 까닭에 어머니가 대신 가정 경제를 맡아야 했던 가족사의 심리적 상처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남학생은 결과적으로 복을 가져다주게 되는 혼취를 경솔하게 죽이지 않고 신중하게 관찰하고 도와주기까지 한 아내의 현명함에 주목하면서, 자신도 그런 아내를 얻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는 코에서 혼취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징그러워서 작품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고백한 학생도 있었다. 치료사는 독자-반응 이론의 입장에 서서, 학생들의 이런 의견을 일단 모두 수용하였다. 이렇게 집단토론(집단 상담)을 거친 후에 학생들에게 이 설화에 대한 두 번째 감상문을 적게 하였다. 집단 상담을 마친 후에, <혼취> 설화에 대한 치료사의 문학치료학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치료사가 처음부터 학생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자칫 학생들의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며칠 후에 다시 모여서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심리검사 방법인 주제통각검사와 이야기회전문목 방법 활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심리검사를 해주었다. 그리고 이 심리검사의 결과를 분석해주면서 학생들의 자기 서사를 듣고 이에 대해 이야기 상담치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학생들의 이런 심리검사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야기치료 과정은 보고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문학치료를 시도하고 나서 두 달가량 지났을 때, 학생들에게 문학치료 이후에 나타난 자신의 삶이나 정서적 변화를 글로 적어 보게 하였다. 이는 문학치료 전후의 삶을 비교해봄으로써 문학치료의 효과를 점검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3차감상문은 이런 다양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일어난 자기서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1. 문제의 '외재화 (표출대화)' 기법

이야기치료의 목표는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 있는 지배적 이야기를 버리고 자신에게 힘과 만족을 주는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를 갖게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야기치료의 첫 걸음은 문제 중심의 지배적 이야기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다시 말하면 문제와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거나 어떤 특정한 양식의 사고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바꾸는' 과정을 밝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게 하는 것이다.¹⁶⁾

이야기치료 학파의 주요 이론가인 마이클 화이트(Michael White)는 문제를 외재화(externalizing)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이는 사람보다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에 지배되는 이야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내담자가 지닌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의인화기법이다. 문제를 내담자의

16) 고미영, 앞의 책, 125-126면 참조.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언어적으로 분리하는 이 표출대화(externalizing conversation 또는 외재화)는 이야기 치료자의 기본적인 철학과 태도를 반영해준다. 이 방법은 내담자가 문제인 것처럼 여기는 기존의 사고를 해체하고, 문제는 내담자 안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내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만든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독자적인 실체로 의인화시켜 그 스스로의 생각과 책략, 행동전략을 가진 한 개체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일단 문제가 내담자로부터 분리되면 내담자는 문제가 자신과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출대화를 통해서 문제와의 거리를 가지게 되면서 내담자는 문제를 자신과 다른 어떤 실체로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담자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더 이상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보거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 또한 문제와 분리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문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키워가게 된다. 이 치료기법은 내담자를 존중해 주면서 한 개인과 문제 사이에서 내담자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내담자는 내재화된 수치심과 죄책감을 분리시킬 수 있고 자신과 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통찰과 선택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¹⁷⁾

표출대화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이런 식이다. 어떤 아이가 야뇨증이 있다고 할 때, “너는 오줌싸개구나!”라고 말하여 문제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을 동일시하지 않고 “어젯밤에 오줌싸개도깨비가 찾아와 너의 배를 누르는 바람에 네가 이불에 실례를 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넌 차가운 이불 때문에 잠을 깨야했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몹시 속이 상한 것이구나!”라고 말하여, 야뇨증이란 문제를 오줌싸개도깨비로 의인화함으로써 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분리해내는 대화기법이다. 또 다른 예로, 지각을 자주 하는 등 성실하지 못하여 학업성적이 나쁜 것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너 같은 게으름뱅이는 공부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문제와 사람을 일치시켜서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너의 게으름이 너로 하여금 지각도 하게 만들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게 해서 고민하고 있군요.”라고 말하는 대화 기법이다. 문제의 외재화(표출대화) 기법은, 여기서 내담자가 자신이 지닌 게으름이라는 문제를 표출시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화 방법이다.

상담학에서는 사람과 문제를 동일시하여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심리치료에 있어서 내담자가 특히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매우 나쁜데,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자살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출대화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유익한 치료기법이며, 이야기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문학치료를 수행하는 치료사가 가져야 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태도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치료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인간관을 전달하는 데에 강한 설득력을 지니는 <혼쥐>설화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혼쥐> 설화에 대한 치료사의 문학치료학적 해석

<혼쥐> 설화에는 잠이 든 남자와 남자의 코에서 나온 혼쥐를 발견하고 그를 제어하는 아내가 등장한다. 이 설화에는 두 편의 에피소드가 들어있다. 작품 대부분의 내용은 아내가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의 코에서 나온 혼쥐를 도와준 덕에 현실 속에서 재물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작품 결미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첨가되고 있다. 도벽이 심한 남편의 코에서 나온 두 마리 쥐 가운데에서 성질이 못된 쥐를 죽였더니 도벽이 없어지더라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에서 남편이 잠이 들자 남편의 코에서 흰 쥐가 나온다. 인간이 숨을 쉬는 신체기관인 코에서 나온

17) 표출대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앞에서 소개한 고미영과 양유성의 책을 참조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취는 역시 인간의 혼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가 마비된 상태이며 혼이 빠져나온 상태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내는 그 혼취를 알아볼 수 있었으며 혼취를 도와줄 생각을 했을까? 여기서 아내는 인간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샤먼(무당)을 상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샤먼은 현실세계와 초월적 세계(영적 세계) 사이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고 인간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한다.

이야기를 보면 남편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곧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육체가 아닌 정신임을 이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준다. 인간에게 어떤 종류의 혼취(정신)가 들어가는냐에 따라 그 사람은 각기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 스스로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즉, 인간의 인성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미워할 뿐 인간 자체를 미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이는 인간의 긍정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은 자신의 혼취를 자력으로는 관찰하기도 제어하기도 못하였다. 남편에게 내재한 혼취의 상태를 신중히 관찰하여 이를 격려하거나 제어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간 것은, 잠자는 남편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그의 현명한 아내였다.

아내의 이런 역할은 바로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상담치료에서 내담자를 치료하는 치료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 김철수가 어떤 문제적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에, 교사가 ‘홍길동 = 문제야 = 문제 덩어리’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은 전혀 교육적이지 못하다. 이처럼 홍길동의 자아정체감이 문제 상황에 고착되면서 홍길동과 문제가 동일시되면, 그는 아예 구제가 불가능한 학생으로 인식되어 홍길동이 지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제한되고 말 것이다.

요컨대 <혼취> 설화는 ‘문제’와 ‘문제를 지닌 사람’을 분리하여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일으킨 혼취를 미워해야지 그 혼취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런 불량한 혼취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가엽게 여겨야 한다. 또한 교육자는 학생들의 혼취를 잘 훈련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인간의 마음속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하나는 미워하고 불평하며 분노하는 늑대이며 다른 하나는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는 늑대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손자가 물었다. “두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네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¹⁸⁾

이 <혼취> 이야기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이 모두 끝난 후에, 필자는 치료사가 되어 위에서와 같은 <혼취> 이야기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위의 늑대이야기를 패러디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치료사로서의 해석을 마무리하였다. “우리의 마음속엔 두 마리의 혼취가 살고 있다. 긍정적인 혼취와 부정적인 혼취이다. 어떤 혼취가 더 힘이 세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자주 불러내어 밥을 주면서 훈련시키며 사랑해주는 혼취이다. 화내는 일을 자주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화를 내는 혼취에게 밥을 주며 화내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다.”

18) 솔직히 이 이야기에 대한 주변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

IV. 〈혼췌〉 설화의 문학치료학적 읽기와 교육적 효과

문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원생 9명은 현재 교육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사설학원에서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7명의 감상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지면 관계상 1차와 2차 감상문은 한 편씩만 소개하고,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두 달가량 지났을 때에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작성한 3차 감상문을 여러 편 소개하기로 한다.

윤효진 1차 감상문

혼췌 덕분에 결국 금(金)을 갖게 된 이 사람은 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금을 가질 수 없었다, 도벽이 심한 사람 또한 도둑질하는 것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의 도움이 컸다, 만약 부인이 성질 나쁜 쥐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도벽은 절대 고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다, 또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단점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 혹시 단점을 알고 있다고 해도 혼자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지적해 준다면 빨리 고칠 수 있다, 도벽은 병이다, 그 사람의 병이 나쁜 것이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세영 2차 감상문

이 글에서 흰 쥐가 사람들의 혼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저 작은 생물이란도 알보면 안 된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였다. 처음엔 흰 쥐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남편과 아내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착하고 순진한 남자이고 아내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남편을 리드할 수 있는 여자였다.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것이 아주 조화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 조화로움이 금이라는 큰 이익까지 가져다주는 것을 보고, 부모든 친구든 부부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아껴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윤효진은 이 문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원생들 가운데 유일한 기혼자이다. 윤효진은 이 설화에 등장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주목하여, 모든 사람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타인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는 사고를 보여준다. 안세영 역시 사람들이 서로 조화로운 상보적 관계를 이룰 때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설화를 읽고 있다.

윤효진 3차 감상문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무조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청소를 할 때도 완벽해야 했고, 어른들에게 귀여움을 받기 위해서도 완벽해야 했으며, 결혼 생활도 역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내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이 무척 속상하고 화가 났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아닌데 자꾸만 다른 말을 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이 좀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혼췌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남편이 부인의 말을 잘 들어줘서 참 좋았다, 내 남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쁜 혼췌가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오직 죄만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쁜 혼췌를 쫓아내는 노력을 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속에 나만을 위한 나쁜 혼췌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행동들

또한 남편 안에 있는 고집쟁이 혼주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각자 자신의 나쁜 혼주를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서히 실천에 옮겨서, 나는 칭찬하는 혼주를 키우고 남편은 고집쟁이 혼주를 내쫓으려고 노력했다. 그 덕분에 요즘은 칭찬하는 혼주가 내게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만약 혼주 이야기를 접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설명을 듣지 못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나의 결혼 생활 속에는 서로를 이기려는 고집쟁이 혼주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항상 혼주 이야기를 생각하며 생활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주유희 3차 감상문

혼주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는 우리가 혼주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간다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혼주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난 뒤로는, 문제와 자아를 분리해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혼주를 교육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평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문제를 그저 바라보거나 잊어버리려고만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혼주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그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인 혼주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 부정적 문제를 안고 있는 혼주를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혼주도 같이 찾아보게 되었고, 예전보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떤 한 문제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결정지어 버리던 것에서 벗어나 그 사람과 그 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1차 감상문에서 윤희진은 <혼주> 이야기에서 아내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남편의 태도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거나 고치기는 어려우므로, 아내가 남편의 단점을 찾아내어 고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사실 윤희진은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 상대방을 완벽하게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이 강한 편인데, 남편 또한 주관이 매우 뚜렷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결혼 생활에서 자주 마찰을 일으키곤 하였다. 윤희진은 이번 문학치료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주제통각검사를 통해 자기 부부의 이런 갈등상황과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완벽한 결혼 생활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편을 조종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그는, 지금까지 남편의 태도만 탓했을 뿐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반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마음대로 남편을 조종하려 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인정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희진은 먼저 남편에게 사과하였으며, 그날부터 자주 남편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하였다. 위의 3차 감상문은 이런 노력을 시작한 지 2개월 쯤 되었을 때에 작성한 것이다. 김효진은 현재 남편의 태도가 이전과 달리 많이 유연해졌으며 자신에 대한 칭찬이나 애정표현이 상당히 풍부해졌다고 말하였다.

문제가 사람에게 깊숙이 밀착되어 있어서 그 문제와 사람이 동일시된다면, 사람은 자신이 지닌 문제의 실체를 깨닫기 어렵다.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고, 거울이 있더라도 바로 눈앞에 갖다 대면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유희는 자신의 문제를 자기 자신과 분리하여 생각하게 되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타인에 대한 단정적인 시선을 교정하게 되었다. 윤희진과 주유희은, 자신에게서 문제를 분리해냄으로써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서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게 된 것이다.

손영은 3차 감상문

나는 지나치게 자신을 학대하는 아이였다. 자신과의 약간의 타협도 용서하지 못하고 리포트를 쓸 때나 시험을 칠 때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나의 그런 지나친 완벽주의가 나 스스로를 학대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다' 라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나 자신의 만족감도 있지만, 그 리포트 하나로, 그 시험 하나로 내가 미움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욱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독하게 열심히 해왔다.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즐겁지 않았다.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 시험도 그냥 A+가 아닌 최고의 A+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언제나 숨 막히게 했다.

그런 시기에 혼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나는 미움 받는 것이 싫어서 지독히 열심히 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깟 리포트나 시험 때문에 나를 미워하거나 예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혼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스트레스를 벗었다. 혹시 리포트를 멋지게 못 쓰더라도 선생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발표를 잘못해도 야단을 맞는 것은 내 자아나 인격이 아니라 잘못된 리포트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문제와 나를 떨어뜨려 보게 되면서 나는 스스로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혼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커다란 압박이었던 지나친 완벽주의,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강박증을 버렸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숨 막히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공부하는 것이 더 즐겁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보라 3차 감상문

나는 평소 어떤 일이 생기면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는 편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문학치료 수업을 들은 뒤 마음이 많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왜냐하면 내 자신과 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일에 대해 내 자신에게 화풀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나는, 요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예전과 다르게 스스로에게 화내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과 나를 분리시키는 연습을 하였다. 그랬더니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의 내가 있다. 여러 가지 나의 모습 중에서는 스스로가 만족하는 나도 있고 싫어하는 나도 있다. 좋아하는 나는 긍정적 사고를 지닌 나이고 나머지 싫어하는 나는 게으른 나이다. 긍정적인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헤쳐 나간다. 하지만 게으른 나는 중요한 일도 쉬운 일도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기 일쑤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나와 게으른 내가 안에서 대립해 있을 때 게으른 내가 항상 긍정적인 나에게 이긴다는 것이다. 그것도 한 방으로 말이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내 자신이 싫어 자책도 많이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런 상황이 다시 오면 나는 이전과 같이 행동하고 만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심한 강도로 나 자신을 채찍질하곤 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혼쥘 이야기는 이런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내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게 된 것이다. 미워해야 할 것은 내 안의 게으른 혼쥘이기 때문이다. 게으른 나의 모습을 미워했던 나는 앞으로는 스스로를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그 사람까지 미워하는 큰 실수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둔다면 아이들을 지혜롭게 훈계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손영은과 이보라는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에 때문에 스스로를 몹시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손영은의 완벽주의는 혹시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손영은은 어린 시

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생모에 대한 친밀한 감정이나 기억이 없다. 그리고 현재는 아빠와도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 손영은은 스승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얻으려는 욕망이 매우 강할 뿐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맹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특히 학업 성취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픈 욕망이 아주 강한데 언제나 동기생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학업성적을 거두고 있다.

인간의 사랑에는 존재론적 사랑과 조건부적 사랑이 있다고 한다. 존재론적 사랑은 조건과 무관하게 존재에게 영속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이기에, 인간에게 신뢰와 평안과 안정을 준다. 그러나 조건부적 사랑은 어떤 조건(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얻게 되는 것이어서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 존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이런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을 지켜보는 타인의 시선과 욕망을 의식하며 극심한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조건부적 사랑에 강하게 집착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매우 불안정한 자아정체감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존재론적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다. 혈연관계라는 영속적 관계에 따른 불변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의 사랑스러운 행위(조건)가 아닌, 자식이라는 관계성 때문에 “무조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존재론적 사랑을 믿지 못했던 손영은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얻고 싶어서 늘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꾸짖는 것은, 자식(존재)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잘못(가변적 조건)을 미워하여 그것을 고쳐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손영은은 <혼 쥐> 이야기를 통해 ‘존재’와 ‘가변적 조건’을 확실히 구분하는 한편, 존재론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되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과도하게 억압해온 자아를 해방시킴으로써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갖게 되자, 자신에 대한 타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보라는 어떤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때마다 자신을 극심하게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결국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처리한 일 때문에 다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문제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분리해내는 ‘문제의 외재화’ 방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함으로써 더 이상 자학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에 빠지지 않게 되면서 이전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이보라는 이런 ‘문제의 외재화’ 연습을 통해 극심한 완벽주의에서 오는 자기혐오와 우울증을 개선하고 있다.

박현숙 3차 감상문

혼쥐 이야기를 읽고 처음에는 막연히 현명한 아내와 그런 아내를 신뢰하고 따른 현명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하였는데, 선생님의 해석을 듣고 난 후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선생님께서는 나쁜 일을 한 사람과 나쁜 행동을 분리해서 보아야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의 연구발표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실 때마다, 잘못된 연구발표내용과 연구자를 분리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면 연구자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선생님의 가르침과 혼쥐 이야기의 해석을 듣고 난 후 나에게 변화가 생긴 것 같다. 먼저 내게는 조금 게으름 피우는 병이 있는데 예전에는 ‘난 원래 이래, 대충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의 나쁜 혼쥐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한 혼쥐로 단련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혼쥐를 단련시킨다, 그리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전에는 말뚱을 피우고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는 학생들이 미워서 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혼쥐 이야기를 들려주며 너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나쁜 혼쥐가 그런 거야, 선생님은 너희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나쁜 혼쥐를 혼내는 거야,’ 라고 말하고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린다. 그리고는 쉬는 시간에 '아프지 않았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알았지? 질할 수 있는데 오늘은 왜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아파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하며 바로 나랑 장난을 치곤한다. 그럴 때에는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다. 혼쬐 이야기는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아주 좋은 교과서라는 생각이 든다.

김은화 3차 감상문

혼쬐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의 문학치료수업을 들으며, 나의 나쁜 습관은 나쁜 혼쬐에 의해 생긴 것이므로 그 나쁜 혼쬐를 내 안에서 꺼내어 없애 버리면 나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다양한 문학치료 수업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쁜 혼쬐를 버리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거나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런 나쁜 혼쬐,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군!' 이렇게 생각 하며 내 행동을 더욱 조심하게 되고 나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릇된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참 별로야,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하며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생겼다. '아~ 저 사람은 나쁜 혼쬐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거야.' '아~ 저 사람 속엔 나쁜 혼쬐가 많네, 빨리 혼쬐를 버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 줘야지,' 하고 이해심을 넘어 측은한 마음까지 생겼다.

나는 미래에 교사가 될 사람이다. 나는 이 문학치료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학생들을 좋은 아이와 나쁜 아이로 구분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 습관이 계속 된다면 아마 나는 아이들을 편애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혼쬐 이야기를 접하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혼쬐라는 것을 믿게 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약 학생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면, '빨리 나쁜 혼쬐를 없애고 착한 혼쬐만 살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을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는 선생님이 될 것 같다.

박현숙과 김은화는 인간의 인성과 능력은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혼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훈련시킨다면 현재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교육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관이라고 하겠다. 두 사람은 실제로 학생들의 인격이나 능력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교육철학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보일 경우에 해당 학생을 문제아로 낙인찍지 않고, 그 문제행동만을 주목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때 학생들에게 <혼쬐>설화를 들려줌으로써, 학생과 문제를 분리하여 훈육하는 교육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V. 마무리

문학 감상에 있어서의 주체와 타자의 문제를, 학교에서의 문학교육과 관련하여 고민해보았다. 그 결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문학 수업이 학생과 교사 모두를 문학 감상의 주체가 아닌 타자로 소외시키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문학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줌으로써 이를 통해 학생 각자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주목하였는데, 바로 문학치료학의 방법론을 문학 감상 수업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문학치료에서 설화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실제로 상당히 효과적이란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문학 치료를 활용한 작품 읽기와 토론, 그리고 글쓰기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주체적 문학 감상을 유도하는 데에 매우 유용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문학작품에 대한 권위적 해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의 문학 수업은 학생들을 문학 감상의 영원한 타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문학이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기는커녕 억압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혼취> 설화를 문학치료학의 핵심적 치료기법인 ‘문제의 외재화’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이를 문학치료의 도구로 삼아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임상을 시도한 결과, 이 설화가 아주 효과적인 문학치료의 도구임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였다. 한국적인 문학치료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전망은 아주 밝다. 문학치료학은 특히 문학연구가 더 이상 소수 엘리트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머물지 않고 대중들의 정서 치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진지하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고미영, 『이야기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청목출판사, 2004.
- 박성희, 『동화로 열어가는 상담이야기』, 학지사, 2006.
- 박종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이야기 심리 치료』, 학지사, 2005.
- 변학수, 「치료로서의 문학-독서행위와 치료적 전략」, 『독일어문학』17집, 독일어문학회, 2002.
- _____, 『문학치료』, 학지사, 2005.
- _____,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2006.
- 서은아, 『나무꾼과 신녀에 나타난 부부 갈등 연구』, 제이앤씨, 2005.
- 신동훈, 『세계민담전집-한국편』, 황금가지, 2003.
- 신상성, 「심리치료를 위한 문학적 접근방법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7.
- 신원기, 「설화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120』, 한국어교육학회, 2006.
- 양유성, 『이야기치료』, 학지사, 2004.
- 이강옥, 「문학 치료 텍스트로서의 <구운몽>의 가치와 가능성-우울증과 관련하여」, 『한국고소설학회 78차 정기학술대회 논문발표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 이영식,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학지사, 2006.
- 이영애, 『책읽기를 통한 치유』, 홍성사, 2005.
- 이인경, 「무대에 오른 구비문학, 그 성과와 전망」,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 전영숙, <바리공주>를 활용한 문학치료의 실제 및 그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4.
- 전영숙, 「문학치료 기법의 학교 현장 적용」, 『문학치료연구』 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도서출판 문학과 치료, 2006.
- 정충권, 「문학치료학의 출발점 다지기」, 『고전문학과 교육』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엘리스 모건, 『이야기치료란 무엇인가』, 고미영 역, 청목출판사, 2003.
- 조셉 골드, 이종인 역, 『비블리오테라피』, 북키앙 주식회사, 2003.
- John Bradshaw, 오제은 역,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학지사, 2004.
- J. Winslade · G. Monk, 송현종 · 정수희 공역, 『이야기상담』, 학지사, 2005.

A Study on "Soul-mouse story" in the respect of Literatherapy and Educational Application

Lee, In-gyung

This research is to analyze "Soul-mouse story" in terms of literature therapy and apply them into the field of education. Where the literature classes are held is the field where student's narrative, literary narrative and teacher's narrative interact. Therefore, it is a big mistake that literature education has been focused on examining the literature itself or on simply implanting educators' viewpoints and philosophy to the students. The ultimate goal of literature education should be to enrich students' sentiments and their lives through literary work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educators' sentiment should be healthy.

This research is to report examples of literature therapy attempted with the medium of folktales to enable students, who desire to teach Korean literature, to acquire sound self-narrativ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al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literature therapy have admitted that their trauma was cured to a great extent and they got encouraged to realize their merit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proved that "Soul-mouse story" was very effective for them to be well-qualified teachers.

key words : Soul-mouse story(혼주 설화), literatherapy, folktales, literature education